

실험체에 사용된 쉬어 코넥터의 형상, 사용소재 및 접합위치는 그림 1 및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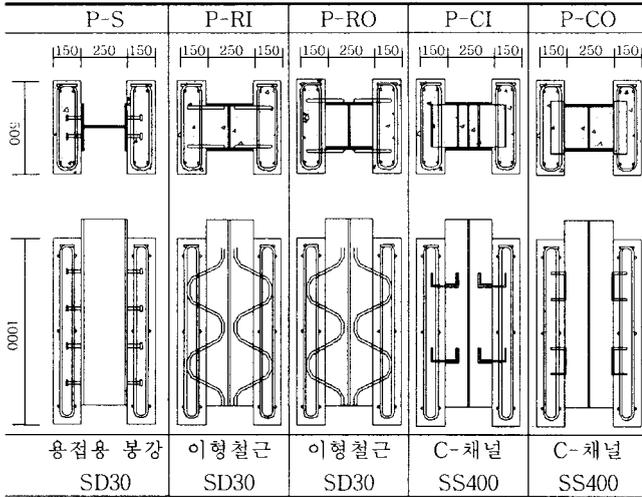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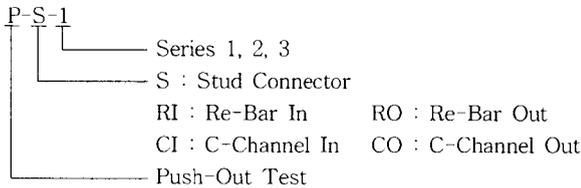


그림 1 실험체 형상 및 치수

표 3 쉬어 코넥터 종류 및 접합위치

| 실험체 | 쉬어코넥터 | 접합위치 |
|------------|--------------------|--------------|
| P-S-1,2,3 | D16@200 | 2열4줄 양쪽플랜지 |
| P-RI-1,2,3 | D16 이형철근 | H-형강 플랜지 안쪽 |
| P-RO-1,2,3 | D16 이형철근 | H-형강 플랜지 바깥쪽 |
| P-CI-1,2,3 | 150×75×6.5×10 C-채널 | H-형강 플랜지 안쪽면 |
| P-CO-1,2,3 | 150×75×6.5×10 C-채널 | H-형강 플랜지 바깥면 |



2.2 실험 방법

Push-Out Test는 용량이 200tf인 만능재료 실험기(이하 U.T.M이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설치한 후 단순 가력으로 재하하였다. 가력속도는 분당 2mm의 속도로 변위 제어로 재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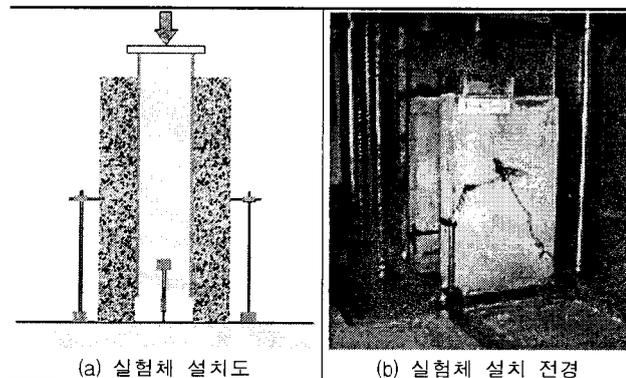


그림 2 실험체의 설치 및 실험 전경

변위 측정은 Push-Out 실험체의 상대변위를 알기위해 LVDT(100mm)를 H형강 플랜지에 그림 2와 같이 양면에 설치하였고, 콘크리트의 탈락 및 벌어짐을 측정하기 위해 콘크리트면의 좌우에 LVDT(50mm)를 설치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최대하중 및 파괴성상

3.1.1 P-S (기준형)시리즈

P-S 시리즈 실험체는 쉬어 코넥터로 기존의 스티드를 사용한 실험체로 플랜지 양쪽에 2열 4줄로 총 16개의 스티드를 아크모살용접으로 접합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콘크리트의 파쇄 이전에 스티드가 모두 전단파괴되는 파괴성상으로 나타났다. 스티드를 아크모살용접으로 H형강에 접합하는 방법은 스티드의 모살용접 부분이 전단파괴되므로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S-1 실험체는 가력을 시작한 후 최대하중 96.88tf에서 하중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콘크리트의 파괴 이전에 스티드의 용접부가 전단파괴되면서, H형강과 콘크리트와의 이격현상이 나타났다.

P-S-2 실험체는 최대하중 88.44tf에서 실험체의 한쪽 콘크리트가 사진 1-(a)와 같이 완전히 탈락되었다.

P-S-3 실험체의 경우에는 가력시작 이후로 최대하중 88.92tf에서 하중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두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에 별다른 균열 없이 스티드가 전단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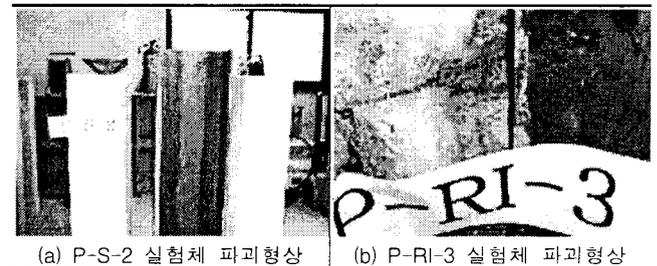


사진 1 실험체 파괴형상

3.1.2 P-RI 시리즈

TSC 합성보에 새로이 적용되는 쉬어 코넥터의 형태로써 D16의 이형철근을 절곡하여 H형강의 플랜지 안쪽에 아크모살용접으로 접합하였다. TSC 합성보에 적용되는 형식에 따라 Push-Out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므로 콘크리트와 H형강의 마찰 및 부착력에 의해 쉬어 코넥터의 전단내력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P-RI-1 실험체는 U.T.M의 용량한도까지 하중-변형 곡선이 탄성상태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면에도 하중저감의 원인이 되는 크랙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U.T.M의 최대하중인 195.04tf에서 가력을 중지하였다.

P-RI-2 실험체는 P-RI-1 실험체와 동일하게 U.T.M의 용량한도까지 하중-변형 곡선이 탄성상태로 나타났다. 콘크리트면의 초기 크랙은 130tf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하중 저감의 원인이 되는 크랙은 발견되지 않았다.

P-RI-3은 최대하중이 188.6tf으로 나타났으며 최대하중 이후 콘크리트면의 압괴와 H형강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가 전단파괴되는 균열이 발생했다. H형강과 콘크리트의 이격이 보이며 하부 콘크리트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3.1.3 P-RO 시리즈

P-RI 시리즈 실험체와 비교하기 위하여 D16의 이형철근을 플랜지 바깥쪽 면에 용접하고, 용접부위에 콘크리트가 묻히지 않도록 계획한 실험체이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마찰과 부착력이 없기 때문에 쉬어 코넥터의 순수 전단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RO-1 실험체는 최대하중이 55.64tf으로 나타났으며, 쉬어 코넥터 주변의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H형강과 콘크리트면의 이격현상이 발생하였다.

P-RO-2 및 P-RO-3 실험체는 최대하중이 각각 60.16tf, 67.8tf으로 나타났으며, 쉬어 코넥터 주변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콘크리트 면으로 진전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P-RO-1 실험체와 같이 H형강과 콘크리트면의 이격현상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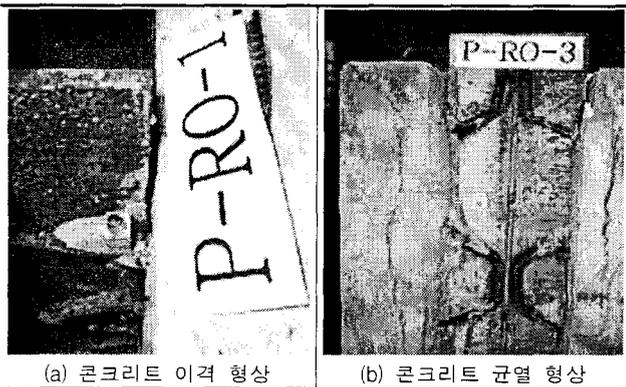


사진 2 P-RO 시리즈 파괴현상

3.1.4 P-CI 시리즈

TSC 합성보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쉬어 코넥터를 C-Channel을 쉬어 코넥터로 사용하여 수평전단력에 저항하도록 만든 실험체이다. 콘크리트 속에 쉬어 코넥터가 완전히 매입되고, H형강 안쪽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때문에 마찰 및 부착력에 의해 전단내력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P-CI-1 실험체는 최대하중이 123.6tf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콘크리트의 압괴와 쉬어 코넥터가 있는 위치에서의 심한 균열이 파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P-CI-2 실험체는 최대하중 117.56tf에 도달한 후 하중이 감소하다가 90tf부근에서 다시 100tf 정도까지 올라간 후 하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형강 속에 콘크리트가 이격되면서 하부 콘크리트 압괴와 콘크리트면의 균열이 파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P-CI-3 실험체는 90tf 정도의 하중에서 하중이 떨어지다 다시 상승하여 최대하중 103.6tf에 도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H형강 속에 묻힌 콘크리트 면에서 플랜지 양

쪽을 잇는 선이 전단파괴 되었고, 하부의 콘크리트 또한 압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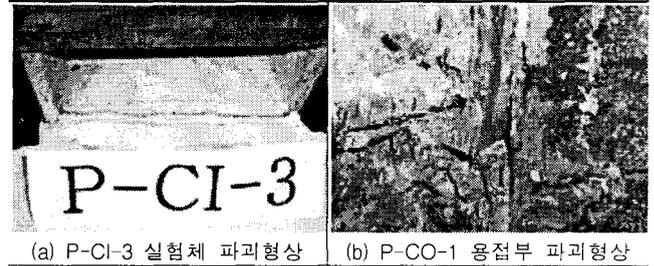


사진 3 실험체 파괴현상

3.1.5 P-CO 시리즈

P-CI 시리즈와의 비교 변수로 C-Channel을 양쪽 플랜지 위에 놓고 용접하여 쉬어 코넥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H형강 속에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때문에 마찰 및 부착력에 의해 내력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P-CO-1 실험체는 초기 78.2tf에서 하중이 약간 하강한 후 상승한 것으로 보아 마찰에 의한 내력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3.7tf에서 최대하중을 기록한 후 하중이 떨어지다가 120tf에서 40tf으로 급격한 하중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용접부 파괴에 의한 하중의 하락으로 판단된다. 하부 콘크리트의 압괴와 H형강 속의 콘크리트 탈락현상이 나타났다.

P-CO-2 실험체는 콘크리트 면에서의 약간의 크랙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괴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U.T.M의 용량한도인 194.96tf에서 가력을 중지하였다.

P-CO-3 실험체는 최대하중이 177.84tf으로 나타났으며, 최대하중 이후 130tf 부근에서 재상승하다가 하부 콘크리트 압괴, H형강 속의 콘크리트 탈락으로 파괴되었다.

표 4 각 실험체 별 항복하중 및 최대하중

| 실험체 | 항복하중 (tf) | 최대하중 (tf) | 항복하중/최대하중 | 비고 |
|--------|-----------|-----------|-----------|----|
| P-S-1 | 79.31 | 96.88 | 0.82 | |
| P-S-2 | 72.56 | 88.44 | 0.82 | |
| P-S-3 | 78.56 | 88.92 | 0.88 | |
| 평균 | 76.81 | 94.41 | 0.84 | |
| P-RI-1 | - | 195.04 | - | |
| P-RI-2 | - | 195.04 | - | |
| P-RI-3 | 137.58 | 188.6 | 0.73 | |
| 평균 | 137.58 | 192.89 | 0.73 | |
| P-RO-1 | 47.22 | 55.64 | 0.85 | |
| P-RO-2 | 51.45 | 60.16 | 0.86 | |
| P-RO-3 | 59.37 | 67.80 | 0.88 | |
| 평균 | 52.68 | 61.20 | 0.86 | |
| P-CI-1 | 76.52 | 123.60 | 0.62 | |
| P-CI-2 | 72.04 | 117.56 | 0.61 | |
| P-CI-3 | 62.86 | 103.60 | 0.61 | |
| 평균 | 70.47 | 114.92 | 0.61 | |
| P-CO-1 | 128.78 | 163.68 | 0.52 | |
| P-CO-2 | - | 194.96 | - | |
| P-CO-3 | 147.83 | 177.84 | 0.58 | |
| 평균 | 138.31 | 178.83 | 0.55 | |

3.2 하중 변위 곡선

각 실험체의 항복하중 산정 방법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초기 접선과 최대하중(P_u)에서 X축(변위 축)에 평행한 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변위(δ_y)가 항복하중시 변위라 산정하고, 그 변위에서의 하중을 항복하중(P_y)으로 산정하였다.(참고문헌 6)

3.2.1 전체 파라메타별 하중-변위 곡선

총 15개의 실험체 중에 각 실험 변수를 대표하는 한 개씩의 실험체를 선정하였다. 최대하중은 P-RI 시리즈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복하중은 P-RI 시리즈와 P-CO 시리즈의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항복하중을 최대하중으로 나눈 값인 항복비는 C-Channel을 쉬어 코넥터를 이용한 실험체가 0.52~0.61의 값을 보여 다른 시리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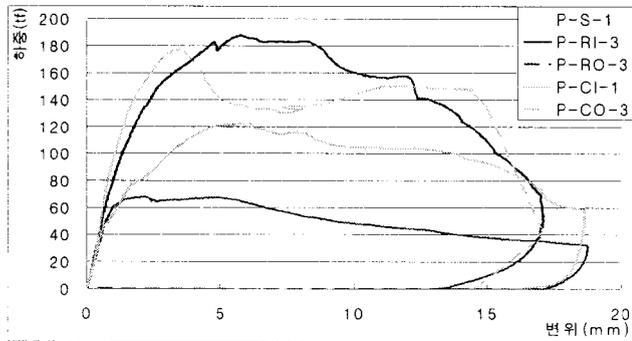


그림 3 전체 변수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

3.2.2 쉬어 코넥터 위치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

같은 쉬어 코넥터를 사용하고 용접위치를 달리한 실험체의 경우 P-RI 시리즈와 P-RO 시리즈 그리고 P-CI 시리즈와 P-CO 시리즈를 비교하였다.

P-RI 시리즈와 P-RO 시리즈를 비교하면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상태에서의 내력과 단순 이형철근일 때의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을 때의 쉬어 코넥터의 내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의 부착 및 마찰강도가 쉬어 코넥터의 전단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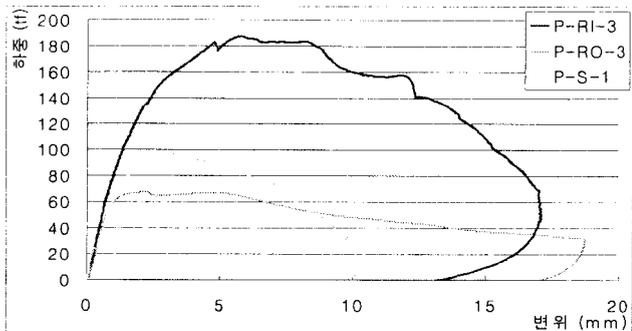


그림 4 P-RI 와 P-RO 시리즈의 비교 곡선

P-CI 시리즈와 P-CO 시리즈를 비교하면, 같은 형태와 같은 강종의 쉬어 코넥터라도 접합위치에 따라 다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채널형 쉬어 코넥터를 TSC 보위에 얹고 용접을 하는 것이 쉬어 코넥터의 역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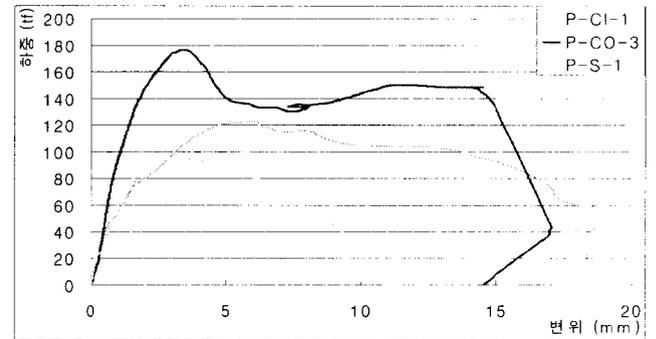


그림 5 P-CI 와 P-CO 시리즈의 비교 곡선

4. 결론

T형 합성보의 Shear Connector 형태에 따른 전단내력에 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쉬어 코넥터는 쉬어 코넥터의 형태나 재료 뿐 아니라 콘크리트와 쉬어 코넥터의 부착 및 마찰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용접부의 품질 관리 및 용접 길이의 확보가 쉬어 코넥터의 전단내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새로이 제안된 D16 이형철근과 C-Channel을 이용한 쉬어 코넥터의 경우 스티드 이상의 전단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TSC 합성보에 사용되는 쉬어 코넥터의 새로운 디테일은 합성보의 수평전단에 대한 내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1. 박상철(1983), "스티드 코넥터의 내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I)",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3호 pp.55-59
2. 선병택(1981), "이형철근을 이용한 합성보의 Shear Connector내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5권101호 pp.47-51.
3. 한상윤(1987), "합성보에 있어서 이형철근을 사용한 Shear Connector의 내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대회 논문집7권 제1호, pp.445-448.
4. 홍순조(1982), "합성보 Shear Connector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105호 pp.48-53.
5. D.L.Mullet(1988), "Composite floor systems", The Steel Construction Institute
6. 建設省建築研究所(1994.12), (社)鋼材俱樂部, '鋼構造物の耐震保有性能評價のための標準試験方法及び評価基準の提案'.